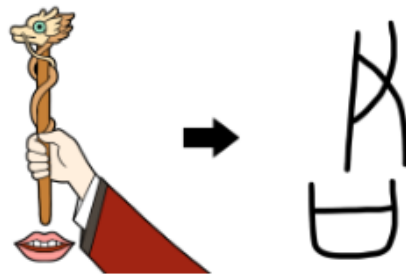


## 회의문자①



君

임금 군

君자는 '임금'이나 '영주', '군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君자는 尹(다스릴 윤)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尹자는 권력을 상징하던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尹자에 口자가 결합한 君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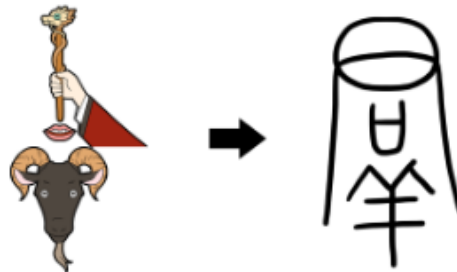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群

무리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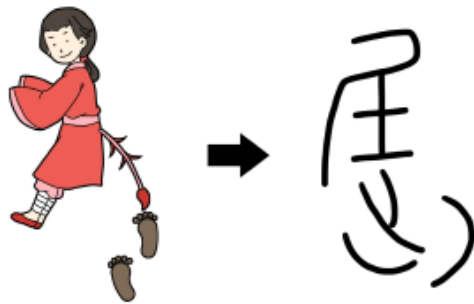
群자는 '무리'나 '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群자는 君(임금 군)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君자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群자는 본래 군집 생활을 하는 '양'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羊자에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그린 君자를 결합해 양 떼를 모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참고로 소전까지는 羣(무리 군)자가 쓰였었고 群자는 속자(俗字)에 불과했었지만, 해서에서는 글자가 바뀌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屈

굽힐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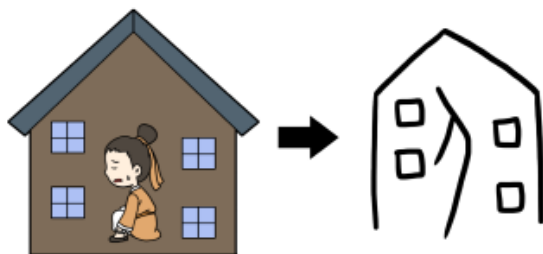
屈자는 '굽히다'나 '움츠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屈자는 尸(주검 시)자와 出(날 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屈자는 본래 尾(꼬리 미)자와 出(날 출)자가 결합한 것이었다. 금문에 나온 屈자를 보면 尾자 아래로 出자가 尾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두려움에 꼬리가 움츠러드는 모습을 出자로 표현한 것이다. 해서에서는 毛(털 모)자가 생략되면서 지금의 屈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①



窮

다할/궁  
할 궁

窮자는 '극에 달하다', '가난하다', '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窮자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매우 가난하다'이다. 窮자에는 그 가난한 정도가 잘 묘사되어 있다. 우선 窮자의 갑골문을 보면 宀(집 면)자에 人(사람 인)자, 畀(등뼈 려)자가 窮 결합한 형태였다. 이것은 집에 뼈가 앙상한 사람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人자는 身(몸 신)자로 바뀌었고 宀자도 穴(구멍 혈)자로 바뀌면서 '궁하다'라는 뜻의 窮(궁할 궁)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 '궁하다'라는 뜻은 窮자가 쓰였었지만, 지금은 이체자(異體字)였던 窮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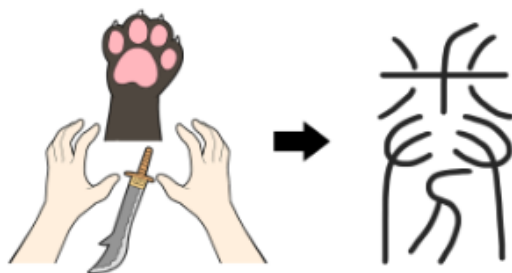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 ⓘ



券자는 ‘문서’나 ‘증서’, ‘계약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券자의 소전을 보면 두 개의 卂(받들  
공)자와 采(분별할 변)자, 刀(칼 도)자가 쓰여 있었다. 여기서 采자는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것으로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동물의 발자국을 보면 어떤 동물인지 분간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券자는 계약서나 증서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 券자에 쓰인 采자는 분별이나 식별  
할 수 있음을 뜻하고 刀자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해서에서는 모양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는 ‘표식이 있는 증서’라는 뜻이었다.

券

문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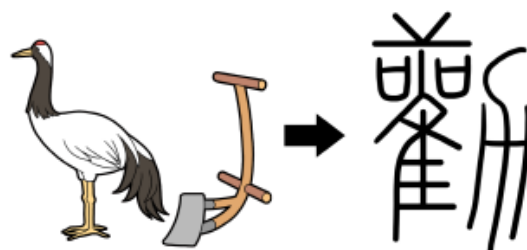
𠂔

소전

券

해서

## 형성문자 ⓘ



勸자는 ‘권하다’나 ‘권장하다’, ‘힘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勸자는 瞞(황새 관)자와 力(힘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瞞자는 눈썹이 크게 두드러진 황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관→권’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남에게 무언가를 권유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勸자에 쓰인 力자는 그러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勸자는 ‘권하다’나 ‘권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勸

권할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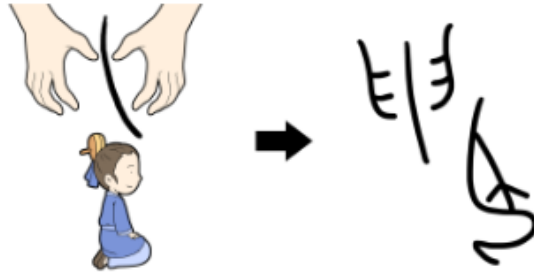
新

소전

勸

해서

## 회의문자①



卷

책 권(·)

卷자는 '책'이나 '두루마리', '(돌돌)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卷자는 모양이 크게 바뀌기는 했지만 𦵏(병부 절)자와 采(분별할 변)자,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卷자를 보면 𦵏자 위로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𦵏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죽간(竹簡)을 손으로 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卷자의 본래 의미는 '말다'였다. 그러나 후에 말아놓은 죽간 자체를 뜻하게 되면서 '책'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扌(손 수)자를 더한 捲(말 권)자가 '말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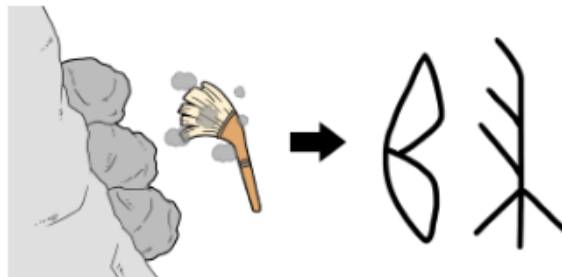
𦵏

소전

卷

해서

## 회의문자①



歸

돌아갈  
귀:

歸자는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歸자는 阜(언덕 부)자와 止(발 지)자,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阜자와 帚자만이 歸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阜자는 '쌓이다'라는 뜻의 堆(언덕 퇴)자가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쌓이다'라는 뜻을 가진 堆자에 帚자가 더해진 것은 집안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歸자의 본래 의미는 '시집을 가다'였다. 아마도 시집간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止자가 더해지면서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歸

갑골문

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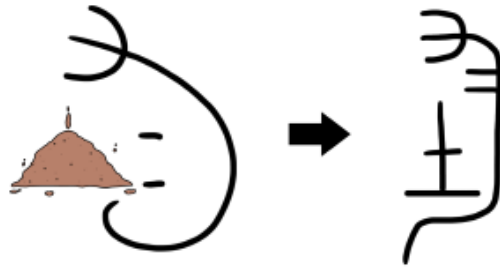
歸

소전

歸

해서

## 회의문자①



均

고를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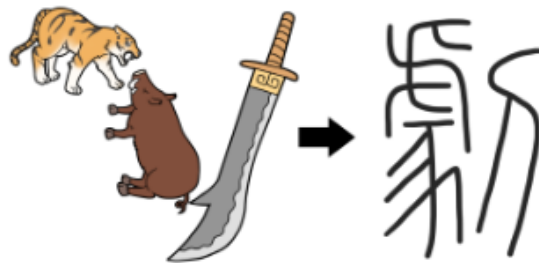
均자는 '고르다', '균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均자는 土(흙 토)자와 勻(고를 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勻자는 무언가가 '고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均자는 이렇게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勻자에 土자를 더한 것으로 '(땅이)고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均자에서 말하는 '고르다'라는 것은 본래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뜻했다.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劇

심할 극

劇자는 '심하다'나 '연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劇자는 虍(원숭이 거)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虍자는 본래 호랑이(虎)와 멧돼지(豕)를 함께 그린 것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운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이다. 虍자는 서로 다투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力(힘 력)자가 더해진 勦(힘쓸 거)자는 '힘쓰다'라는 뜻이 되었고 刀자를 더한 劇자는 이보다 더 극렬하다는 의미인 '심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劇자는 '심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대단하다'나 '바쁘다', '장난하다', '연극' 등과 같은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